

2012. 11. 5 제298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헤드라인뉴스(문화·디자인)

1. 향후 25년의 문화분야 발전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Chicago Cultural Plan 2012) 수립 (미국 시카고市)

문화·디자인

(토막기사) 팝음악 지원사업본부인 ‘뮤직보드’ 설립 추진 (베를린市)

산업·경제

2.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 추진 (도쿄都)

건강·복지

3.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 실시 (일본 교토市)
- (토막기사) 지역도서관에서 차별에 대한 경험담을 육성으로 들려주는 ‘살아있는 책’ 서비스 제공 (영국 반슬리市)

도시환경

(토막기사) Vertical Greenhouse 등 도심 내 농장 적극 조성 (스웨덴 외)

(토막기사)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심공원 건설 추진 (멕시코 멕시코시티)

도시계획·주택

4. 장소별 특성에 맞는 녹지 활용 도시계획 추진 (영국 브라이튼·호브市)

(토막기사) 중산층의 첫 내집 마련을 지원해 건설산업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 추진 (런던市)

(토막기사) 조닝맵 등 도시의 주요 지리정보를 GIS 및 그림파일 등으로 일반에 공개 (뉴욕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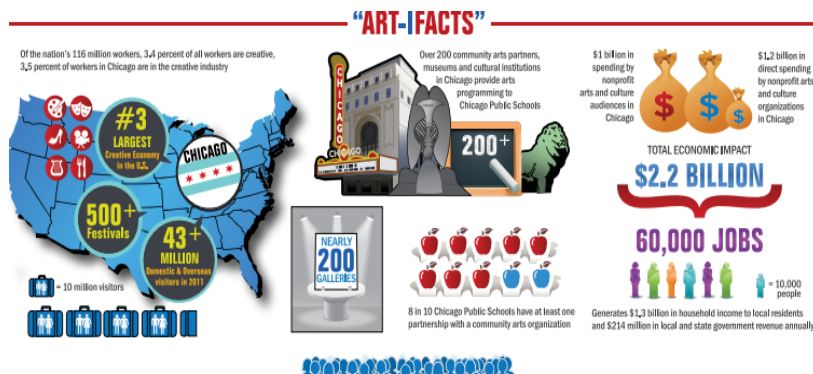
헤드라인 뉴스 (문화 · 디자인)

1. 향후 25년의 문화분야 발전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Chicago Cultural Plan 2012) 수립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 공동창조, 영감에 초점을 맞춘 시카고 문화발전 계획(Chicago Cultural Plan 2012)을 최근 수립함. 이 계획안은 향후 25년의 문화분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의 창조성, 혁신성 등을 제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市는 이번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문화예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경제발전, 문화관광 수요 창출,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함.
 - 시카고 문화발전계획은 1986년 시카고의 문화행사에 대한 필요성 등을 조명하면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1995년 두 번째 계획안이 국제문화·예술 분야에 초점을 맞춰 수립되었고, 이번에 다시 시카고의 문화 성장과 기회 창출에 초점을 맞춰 계획안이 수립됨.
-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市는 2만 4000여 개의 창조산업 부문 사업장과 650개 문화예술 분야 NGO 등 문화예술 부문의 영향을 받는 기관과 관련 종사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시행함.
 - 조사 결과 시카고市가 세계적 수준의 문화도시이자 미국 내 세 번째로 큰 문화예술 분야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술가 및 창조산업 관련 종사자가 도시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줄이고 다른 州 혹은 외국에서 온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

기 위한 문화예술공연 분야 활성화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함을 강조함.

- 이에 市는 문화예술 부문이 강화된 도시가 시민의 삶의 질, 커뮤니티 발전, 경제적 파급효과, 리더십 개발, 시민참여 유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200개가 넘는 상세계획을 수립함.
- 시카고市는 현재 200개 이상의 지역 단위 커뮤니티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거나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시내에 200개 이상의 갤러리가 있으며, 전체 학교 중 80%가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시카고 문화예술 부문의 규모 및 현황】

- 상세계획은 10개의 상위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 형식의 세부 계획을 포함함. 10개의 상위 목표는 ①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시스템 개발, ② 창조산업 및 예술가에 대한 재교육 및 지원, ③ 지역 단위(구, 동 및 근린 단위) 문화예술 예산 확보, ④ 근린 단위 문화계획 수립, ⑤ 관련 조례, 규제 및 법안의 최적화, ⑥ 문화부문에 대한 수용능력 강화, ⑦ 문화의 가치와 영향에 대한 홍보, ⑧ 문화개혁의 중요성 강조, ⑨ 국제적 문화도시로서의 입지

강화, ⑩ 문화를 일상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임.

- 특히 이번 계획안은 문화예술 분야 공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교육에서 예술 분야에 배당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늘리며, 문화와 관련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문화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 市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수학, 과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시간과 중요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市 교육청은 21세기를 이끌어 가기 위한 인재는 문화예술 분야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번 계획은 현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규모 면에서도 5만 달러(약 5500만 원) 정도로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계획(전체 17%)이 많음. 따라서 市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어 시민의 일상생활이 문화적인 삶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



【Chicago Cultural Plan 2012 계획의 구성도】



【Hyde Park 문화센터(왼쪽). 학생 대상 문화교육 프로젝트의 하나인 Albany Park Theater Project(오른쪽)】

(http://www.chicagoculturalplan2012.com/#e8c/custom_plain)

(http://www.chicagoculturalplan2012.com/#5ae/custom_plain)

(http://www.chicagoculturalplan2012.com/#_)

(www.goweetu.com/ccp2012/ccp_final_docs/Final-CCP2012_Executive_Summary.pdf)

(http://www.goweetu.com/ccp2012/ccp_final_docs/Final-CCP2012-Sup.pdf)

(http://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mayor/press_room/press_releases/2012/october_2012/chicago_culturalplan2012unveiled.html)

문 화 · 디 자 인

팝음악 지원사업본부인 ‘뮤직보드’ 설립 추진 (베를린시)

- 베를린시는 베를린의 팝음악 여건을 개선하고, 베를린을 팝음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팝음악 지원사업본부인 ‘뮤직보드’(Musicboard)를 설립하기로 함. 시는 2012년 10월 16일 베를린 팝음악 · 록음악 관계자와 함께 팝음악 지원사업본부 설립 및 운영안을 결의함. 이에 따라 시장(市長)은 2013년 1월 1일 지원사업본부

장을 임명하게 되고, 팝음악 지원사업본부는 2013년 상반기에 뮤직보드라는 이름으로 개원하게 됨. 市는 뮤직보드의 운영을 위해 한해 100만 유로(약 1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함. 이와 별도로 市가 지급하는 팝음악 지원금은 계속 유지됨.

- 팝음악 지원사업본부의 주요 목적은 무엇보다 팝음악인에 대한 지원 및 양성, 팝음악 발전을 위한 기본구조(고용관계, 연습실 및 녹음실, 테크닉, 출연기회, 공연을 위한 이동편의 등) 개선, 팝음악과 록음악 도시로의 입지 강화 등임. 그밖에도 뮤직보드는 市와 팝음악계, 기업 간을 매개하며 이들 간의 갈등도 중재하게 됨.
 - 그동안 市는 팝음악 지원사업본부의 설립을 위해 300명 이상의 팝음악·록음악인과 프로덕션, 협회 등과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토론과 대화를 함. 토론의 중심 주제는 팝음악인이 창의적으로 작업하고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 마련, 젊은 팝음악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방안, 팝음악 수출전략에 대한 재고 및 외국 음악인 및 프로덕션을 베를린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 등임.
 - 지원사업본부장은 2013년 업무 시작과 함께 3가지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됨. 팝음악인과 팝음악 프로덕션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능성과 전문가 양성 교육 가능성을 타진하고, 베를린 팝음악의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며, 라이브 팝음악·록음악 클럽과 지역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클럽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임.
- － 베를린市는 지원사업본부 설립으로 독일에서 팝음악에 대한 공공지원기구를 둔 첫 번째 도시가 될 전망이다. 市는 2010년부터 매년 9월 ‘베를린 뮤직위크’(Berlin Music Week) 행사 기간에 국제음악경연대회, 국제음악박람회, 세계음악인 전문 미팅을 포괄하는 대규모 음악페스티벌을 개최해 국내외 음악인의 새로운 관심도로 부상함. 여기에 팝음악과 록음악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하는 지원사업본부가 설립됨으로써 음악도시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21016.1245.376663.html)

(www.berlin.de/rbmskzl/musicboard/)

(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veranstaltungen2/fragenkatalog_2_anhoerung_musicboard.pdf?start&ts=1335519470&file=fragenkatalog_2_anhoerung_musicboard.pdf)

산 업 · 경 제

2.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 추진 (도쿄都)

- 도쿄都는 도시의 매력과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긴자(銀座)’ 프로젝트를 일본 국토교통성과 연계해 추진 중임. 이 프로젝트는 유비쿼터스 ID 기술을 활용해 위치와 건물에 ‘Ucode’라는 고유식별자를 부여하고 단말기 등을 통해 자동인식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긴자’
실증시험구역】

- 都는 나아가 지난 2011년부터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긴자(銀座) 지역의 다국어(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번체 및 간체), 영어) 거리정보 제공 서비스를 2012년 10월 9일부터 도쿄에서 개최된 IMF·세계은행 총회에 맞추어 아이폰(iPhone)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지역도 확대해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okosil 긴자(ココシル銀座)’를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거닐 경우 해당 지역의 상점, 명소 및 이벤트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또한 해당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지역의 역사를 소개하는 ‘긴자 가이드’라는 메뉴도 이용할 수 있음.



【‘kokosil 긴자(ココシル銀座)’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내용】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2/10/20ma4400.htm>)

(<http://www.tokyo-ubinavi.jp>)

(Apple App Store application ‘ココシル銀座’)

건 강 · 복 지

3.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 실시 (일본 교토市)

○ 일본 교토市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경제계와 대학, NPO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학생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임. 市는 더욱 풍부해진 체험활동과 도덕적 실천력 및 규범의식 향상 수업 등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팸플릿을 만들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함.

-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토 지역의 75개 대학과 연계해 연간 2000명의 대학생이 자원봉사자로 중·고교 수업 및 클럽 활동을 보조하고,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활동을 시행하며, 학교수업의 보조교사로 참여하도록 함.
- 토·일요일, 여름방학 때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 및 스포츠 강좌 등 교토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기업이나 대학, 지역단체, 박물관, NPO 등에서 실시함. 이러한 정보를 ‘GoGo 토요 수업’이라는 잡지를 발행(연 9회)해 소개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함. 2009년도에 3700개 사업에 18만 명이 참여함.
-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빗물탱크, 태양광 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옥상녹화 사업을 시행함. 또한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전력감시 측정기를 도입해 4년간 7000만 엔(약 9억 5000만 원)의 전기료를 절약함.

- 과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대를 실시함. 예를 들어 초등·중학생이 이과, 과학 분야의 전문가와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과학 관련 콘테스트 입상을 목표로 한 연구 및 과학 활동 등을 지원하는 ‘U15 사이언티스트 육성사업’과 청소년과학센터의 과학사업 등을 실시함.
- 교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코스’,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발전코스’를 만들어 전통문화를 지도함. 발전코스까지 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코스’를 신설해 전통문화를 문화 장인(匠人)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전문가코스를 들은 학생 중에서 교토의 전통문화를 외부에 소개하는 ‘주니어 교토관광대사’를 임명함.
- 방과 후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배움의 장과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빈 교실과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학부모·지역사회·학교운영위원회·학생의 지원을 받아 제공된 시설 안에서 어린이가 학교공부·독서 및 자율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http://www.city.kyoto.lg.jp/kyoiku/page/0000100014.html>)

지역도서관에서 차별에 대한 경험담을 육성으로 들려주는 ‘살아있는 책’ 서비스 제공 (영국 반슬리市)

- 영국 반슬리(Barnsley)市에 있는 지역도서관에서 사람이 책을 대신해 육성으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음. 반슬리市는 장애,

인종, 성별로 인한 편견으로 고통을 겪은 자원봉사자가 직접 책이 되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간 도서관’(human library)을 운영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겪은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자원봉사자가 겪은 경험을 생생한 육성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슬리시는 2011년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2012년에도 계속 시행 중임.

- 인간 도서관은 그동안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사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와의 10분간 대화를 통해 인간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음. 종이책을 읽을 때에는 할 수 없었던 저자와의 솔직한 대화시간도 가질 수 있음.
- 장애와 성별, 인종 차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전문가가 정보를 가공해 안내책자를 발행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 참여 시민 모두 이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인간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모습(출처: bbc 홈페이지)】

(www.bbc.co.uk/news/uk-england-south-yorkshire-19896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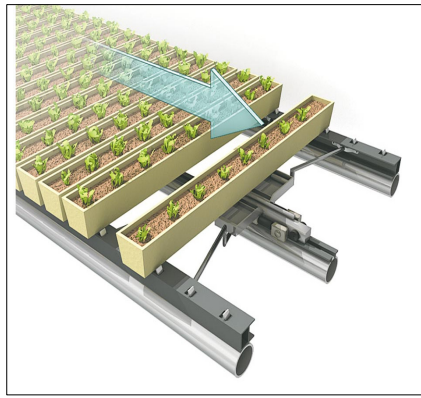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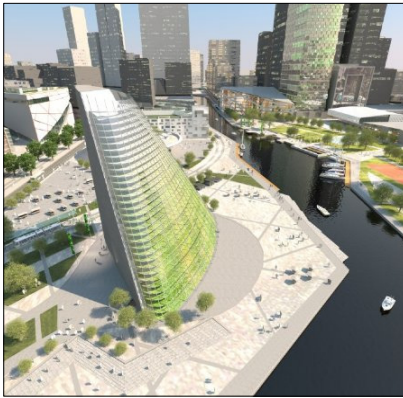
(humanlibrary.org/)

(www.barnsley.gov.uk/news-and-events/news/2012/september/check-out-a-book-from-the-human-library/)

도 시 환 경

Vertical Greenhouse 등 도심 내 농장 적극 조성 (스웨덴 외)

- 다양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에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의 하나인 Vertical Farming(수직 농업)이 스웨덴, 미국 시카고,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거나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이 방식은 도심에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신선한 농작물을 도시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스웨덴에 건설 중인 도심 Vertical Greenhouse(왼쪽). 기계가 자동으로 식물을 천천히 이동시키는 모습(오른쪽)】

- 스웨덴에서는 농작물을 천천히 이동시키며 필요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Vertical Greenhouse’라는 이름의 17층짜리 건물이 2013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임. 나선형의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식물들이 이동하며 성장에 필요한 만큼의 광합성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기존 건물의 외벽과 새롭게 설치되는 유리벽 사이에 식물 성장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있음. 이 건물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농업법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Phantagon社は, 이 방식이 작은 공간에서 적은 양의 에너지와 물을 사용해 효율적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함. 설치비는 일반 건물에 비해 고비용이지만 운영비는 30~50%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보다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봄.

- 미국에서는 이러한 수직 농업법이 시작 단계인데 시카고市에서는 오래된 공장 건물을 농업용 건물로 리모델링해 건물 내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음. 부유하는 뗏목 위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물고기에서 생산되는 부유물이 영양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업용 건물의 옥상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음.



【뉴욕 도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린하우스 전경(왼쪽). 건물 옥상에 설치된 그린하우스(오른쪽)】

- 고밀도 도시인 홍콩에서도 최근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건물 옥상에 농장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으로 인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함.
- 도심 농장이 큰 변화를 이끌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도심 내 농장을 추진하는 나라나 도시에서는 에너지효율적이고, 병충해 등에 적게 노출되어 친환경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지속적인 농작물의 수급 불균형,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론이 대안이 될 수 있고, 도심 농장이 시민의 정서적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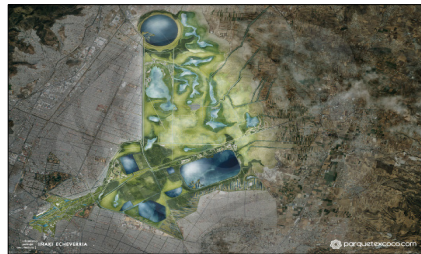
(www.cityfarmer.info/2012/10/15/the-future-of-agriculture-may-be-up-vertical-farms/#more-34807)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3855804577602960672985508.html?mod=ITP_thejournalreport_0#project%3DGREEN1015%26articleTabs%3Darticle)

(www.nytimes.com/2012/10/04/world/asia/fearing-tainted-imports-hong-kong-squeezes-in-farms.html)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심공원 건설 추진 (멕시코 멕시코시티)

-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는 뉴욕 Central Park의 43배에 이르는 Texcoco Lake Ecological Park 조성 사업이 시작됨. Texcoco 공원 예정 부지는 142만km² (우리나라 여의도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로, 멕시코시티 전체의 11%에 해당됨.
- 공원 부지는 과거 11개의 강과 14개의 하수로, 4개의 수질정화시스템, 5개의 호수 및 도랑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홍수예방을 위해 모두 복개된 상태임. 건축가 겸 조경학자인 Inaki Echeverria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으며, 1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기존 생태계 보전과 기반시설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공원은 생태계 복원, 홍수 예방, 휴식공간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계획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153종 30만 마리에 이르는 철새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② 멕시코시티의 자연적인 경계 역할을 담당해 효율적인 도시성장 관리를 도모하며, ③ 습지, 에너지 생산지역, 생태존, 농업존, 수상스포츠 지역, 문화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될 예정임.



【새롭게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Texcoco Park 조감도】



【Texcoco 공원에 조성 예정인 어린이공원 조감도(왼쪽). Texcoco 공원에 들어설 친환경 농경시설(오른쪽)】

(<http://inhabitat.com/textcoco-lake-ecological-park-a-vast-green-space-for-mexico-city-that-is-41-times-larger-than-central-park/schematic-overview-promo-537/?extend=1>)
(<http://www.ecofriend.com/textcoco-lake-ecological-park-largest-urban-parks-completion.html>)

도시계획 · 주택

4. 장소별 특성에 맞는 녹지 활용 도시계획 추진 (영국 브라이튼·호브市)

- 영국 남부에 있는 브라이튼·호브市(Brighton & Hove City Council)는 도심과 市 외곽별 토지 및 도시계획 특성에 따라 녹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도시계획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도심의 경우 유럽연합 재원을 활용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거나 녹지가 있는 인도를 조성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함. 市 외곽의 경우 시민이 市 소유 농장을 산책, 조깅, 탐조(探鳥) 활동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
- 브라이튼·호브市는 도심의 녹지를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함. 市는 이를 위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생동감 있는 도시 사업’(Lively Cities Project)으로 재원을 지원 받음.
- 市는 지역 산업대학(City College) 학생들과 공동으로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도심 내 Providence Place에 있는 조각공원을 개조함. 잔디밭을 둘러싼 철제 펜스를 제거하고 시민이 앉을 수 있

는 쉼터와 간이무대, 탁구대 등을 설치하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함. 이동식 카페도 설치해 시민이 음료를 마시면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유도함.



【생동감 있는 도심 조성사업 시행 전(왼쪽)과 후(오른쪽). 위 사진은 Providence Place, 아래 사진은 Ann Street임(출처 : 브라이튼·호브市 홈페이지)】

- Ann Street 인근 도로에 산책로, 인도, 가로수를 늘리고 조각공원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제거하는 또다른 도심 재생사업도 진행됨. 여기에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노천 카페, 탁구대가 설치되며 인공 산책도로가 추가 조성됨.
- 도심공원 재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2주 동안 새로 설치된 탁구대를 이용해 탁구시합이 열리고, 새롭게 조성된 인도를 따라 설치된 간이음식점에서는 즉석 불고기 등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됨. 또한 가로수 그리기 대회, 어린이를 위한 지역대학 동아리의 춤 공연과 놀이 이벤트, 요가교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활용법 강의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열림.

- 市는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원을 개조하는 과정과 행사를 진행하는 장면을 ‘공원 만들기 실험’이라는 동영상으로 기록해 이를 유튜브(www.youtube.com/watch?v=lgxVyMVdwAg&feature=plcp)를 통해 공개함. 행사 진행을 위해 市에서는 시민 및 학생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함. 또한 市는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와 공원 개조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향후 시정에 반영할 계획임.
 - 또한 市는 市 외곽 Downland에 위치한, 800에이커(약 324만m²)가 넘는 市 소유 농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함. 그동안 이 농장은 일반 시민에게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음. 市는 현재 농장을 운영 중인 농부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개를 결정함.
 - 시민들은 이 농장을 운동(산책, 조깅 등)이나 취미 및 관광(탐조 활동 등)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지역 내 학교에서는 농장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www.brighton-hove.gov.uk/index.cfm?request=c1270694)
- (www.brighton-hove.gov.uk/index.cfm?request=b1161344)
- (www.bbc.co.uk/news/uk-england-sussex-19907700)
- (www.brighton-hove.gov.uk/index.cfm?request=b1149084&action=show_pr&id=265446)

중산층의 첫 내집 마련을 지원해 건설산업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 추진 (런던市)

- 런던市는 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약 1억 파운드(약 17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첫 내집 마련 프로그램’(First Step Programme)에 투자하기로 결정함. 이 사업은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세계도시 런던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 정책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아닌 중산층 정도의 소득원을 가진 시민이 높은 집값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 市는 주택개발계획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1만 명의 시민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주택을 조성하게 됨. 이 사업은 市 전체에 20억 파운드(약 3조 50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고,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10억 파운드(약 1조 7500억 원)의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됨.
- 市는 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강화된 도시계획권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허가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함. 또한 중산층이 다양한 소유구조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 대출, 임대,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임. 중산층의 필요에 부합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제도도 변경하기로 함.
- 市는, 런던의 지속적인 성장이 런던에 거주하는 인적자원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집이 없는 시민이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launches-%C2%A3100m-fund-part-new-housing-deal-londoners-0)

조닝맵 등 도시의 주요 지리정보를 GIS 및 그림파일 등으로 일반에 공개 (뉴욕市)

- 뉴욕市는 조닝맵을 비롯한 도시의 주요 지리정보를 GIS 및 그림파일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업데이트도 신속하게 하고 있음. 市는 2012년 9월 현재 GIS 자료를 Geodatabase format으로 일반에 제공하고 있음. 이는 GIS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무료 뷰어를 다운로드해 누구나 쉽게 파일을 열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조닝과 관련해서는 조닝구역, 특별지구, 특별지구 상세도면, 고도제한구역, 상업 Overlay Zone, 조닝 관련 조례 등의 내용이 주요 공개자료임. 市의 조닝 데이터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자료도 즉시 업데이트되어 바로 확인할 수 있음. 일반인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도면은 Fresh Food Stores Zoning, Nhood Names, Zoning Boundaries 등이
있음.

(http://www.nyc.gov/html/dep/html/press_releases/12-66pr.shtml)

(<http://www.nyc.gov/html/dcp/html/bytes/applbyte.shtml#free>)

(<http://www.nyc.gov/html/dcp/html/neighbor/neigh.shtml>)